SAN시장 제자리 걸음

GPPS보다 가격경쟁력 열세 … 94년 1만5000톤 예상

국내 SAN시장이 수년간 자연신장률 외의 수요증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과 SM의 혼합물인 SAN은 대체가능한 GPPS에 비해 강도 · 내약품성 · 내열성이 우수해 용도는 다양화되었으나,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를 보여 수요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의 용도를 살펴보면 일회용 라이터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밖에 선풍기 팬, 밧데리케이스, 칫솔대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쥬서기, 믹서기 등 제품의 투명성과 우수한 강도가 요구되는 일부 가전제품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에 다소 노랗던 SAN의 투명성 개선으로 고가인 PMMA, PC 사용제품 일 부가 SAN으로 대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품의 투명성을 고집하지 않고 칼라링을 통해 불투명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전체수요는 그다지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의 국내수요는 자연신장률을 감안, 93년 1만3000~1만4000톤에서 7~8% 성장한 1만5000톤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국내 SAN시장은 일회용 라이터 외에 다른 용도는 GPPS로의 대체가 가능한 점과 기존의 투명성을 고집하던 제품의 불투명 재료로의 전환이 예상되고 있어 더이상의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SAN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럭키와 제일모직은 SAN 자체로는 경제적 규모면에서 상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ABS로 브렌딩해서 판매하는 물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AN의 가격은 SM가격의 폭등에 따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가상승을 전적으로 시장에 반영할 수 없어 관련기업에서 상당한 원가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AN시장도 당분간은 다소 고전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SAN가격은 톤당 95만원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9/26>